

現代産業社會 知識人の 야누스적 모습

申 幸 澈

目 次

- | | |
|-----------------------------|---------------------|
| I. 序 論 | 相反하는 두 위치 |
| II. 歷史的 背景에서 본 知識人の
두 모습 | IV. 知識人の 心理的 葛藤의 모습 |
| III. 社會階層構造上의 知識人の | V. 結 論 |

I. 序 論

현대 산업사회의 진전에 따라 사회적 분화가 더욱 촉진되고 조직은 대규모화 하였다. 사회적 분화는 전문화를 촉진하면서 전문 기술자의 필요성을 증대시켰고 이는 과학적 연구에 의해 뒷받침 되어야 했다. 조직의 거대화는 그 조직운영에 더욱 정교하고 세련된 지식의 필요성을 요청하게 되었다. 이러한 시대적 상황 속에서 지식인¹⁾은 그 중요성이 더욱 강조되고 무대의 배우 처럼 각광을 받는 위치에 서게 되었다. 그러나 지식인들은 조직 속의 인간으로 통제받는 위치에 서게 되었다. 여기에 현대지식인들은 이념적·비판적 경향에서 기능적·관료적 지식인으로 변질될 상황에 처하게 된 것이다.

물론 지식인이라는 존재가 오늘에 비롯되는 현상은 아니다. 어느 시대 어느 사회에서나 다른 성원 보다 지적 수준이 높은 사람들은 존재하였다. 그들은 인간사회에 남달리 관심을 기울이고 시대상황에 민감하게 반응하면서 그들 사회의 유지·변화에 크게 작용하여 지식인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였다. 고대의 예언자나 주술사, 중세의 성직자 등은 이에 해당하는

1) 필자는 지식인의 개념에 대해서 이미 논의한 바 있다.(신행철, “지식인 집단의 사회계층적 성격,” 「한국사회의 전통과 변화」-이만갑교수 회갑기념논총-, 법문사, 1983. pp.216~221 참조) 이 글에서는 글이 의도하는 바에 따라 서론의 일부분으로 그 개념을 다시 보충 정리한다.

다. 이들을 K. Mannheim에 따라 사회적으로 일단 지식인(intellectuals)으로 부를 수 있을 것이다.²⁾ 그러나 그들은 수적으로 소수이고 특정의 사회집단을 형성하지 못하였으며 그들 사회구조에 있어서의 위치와 그 영향의 면에서 근대 이후의 지식인과는 크게 차이가 있다고 하겠다.

Coser가 지적한 바 있듯이 지식인이라는 것은 근대적 현상의 일종이고 근대사의 시작과 함께 그 나름대로의 고유의 특질을 발휘하기 시작하였다고 하겠다.³⁾ 서구의 지식인들은 대체로 르네상스 이후 그 수가 많아지고 특정의 사회집단을 형성하여 그들 사회구조에 영향을 끼치게 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들 지식인의 사회적 위치에 대해서는 종래 두 개의 입장이 있다.⁴⁾ 하나는 광범한 사회층을 포괄하는 경우로서 ‘문화를 창조하고 분배하고 응용하는 사람들’을 가르키는 경우(S. Lipset)와 H. Hughes가 말하는 ‘정신의 기술자’라는 수많은 전문가들을 포함하여 일컫는 경우(R. Hofstadter)가 그 예에 해당한다. 다른 하나는 지식인을 가장 엄밀한 범주에 국한시키는 입장으로 ‘창조적인’ 지식인이라든가(C. Mills), ‘자유롭게 사색하는 정신’의 소유자라는 입장(H. Hughes)이 그 예에 해당한다. 이러한 논의는 지식인의 개념을 좁은 의미와 넓은 의미의 두 차원에서 파악할 수 있다는 것이 된다. 좁은 의미의 지식인은 구조·기능적 차원에서 문화를 창조, 전달하며 내면적·정신적 면에서는 지성(intellect)이 충일해서 자유로운 정신적 활동을 하는 사람들이다. 그들은 사상의 창도자요, 구현자이다. 한편, 넓은 의미의 지식인은 일정수준 이상의 교육을 받고 전문직에 종사하는 모든 사람들, 다시 말하면 현실에 참여하여 사상을 적용하는 지적활동에 종사하는 사람들을 포함하게 된다. 이때의 지식인의 경우는 그 지성적인 내면적 자세는 부수적이거나 고려되지 않을 수도 있다.

이러한 지식인의 개념 규정에서 보면 지식인의 모습을 논의함에 있어서 고려해야 할 사항은 두 가지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하나는 지식인이라는 사람들이 사회속에서 어떻게 위치하고 있는가에서 오는 기능적 차원이고, 다른 하나는 그들이 경험하는 정서, 심리상태, 사고방식 등 내면적 차원이다. 지식인들은 구조·기능적 차원과 내면적 차원에서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여 어떤 특징적 모습을 지니고 있는가. 이것은 결국 지식인들의 사회적 기능과 대사회적인 내적 자세를 말한다. 여기에다 더하여 지식인들이 등장하는 역사적 배경을 살

2) K. Mannheim, *Ideology and Utopia*, Routledge & Kegan, 1936, p.232. Mannheim은 “의식적이든 무의식적이든 경쟁체제 속에서 성공이라는 것 이상의 어떤 일에 관심을 갖는 소수의 사람들”을 사회학적으로 일단 지식인이라 부를 수 있을 것으로 보았다.

3) Lewis A. Coser, *Men of Ideas*, Free Press, 1965, pp. x-xi (서문)

4) *ibid*, p.248 참조.

펴보는 것도 지식인들의 모습을 알아보는 또하나의 차원이 될 것이다.⁵⁾

이 글에서는 구조·기능적, 내면적, 역사적 등 세 차원에서 지식인들의 특징적 모습을 논의하려 한다. 다만 논의를 전개하기에 앞서 밝혀둘 것은 여기 논의의 대상이 되는 상황은 지식인의 참여가 크게 요청되고 지식인이 조직 속의 인간으로 존재하게 되는, 현대 산업사회의 상황이라는 점이다. 현대 산업사회에 있어서 지식인은 참여와 소외의 갈림길에서 딜레마에 빠져있는 듯이 보인다. 참여의 지식인과 소외의 지식인, 전자는 司祭的 성격의 지식인이고 후자는 豫言者的 성격의 지식인이라 할 것이다. M. Weber의 종교사회학적 입장⁶⁾에서 보면 참여하는 지식인의 입장은, 상대적인 의미에서, 전통과 전통적 의례와 율법을 관리하는 司祭的 태도에 관련된다. 소외의 지식인의 입장은, 상대적인 의미에서 기성의 의례와 율법에 항거하여, 이 세상의 이익보다는 비 세속적인 구원을 지향하는 豫言者的 태도에 관련된다. 전자는 보수적 이데올로기를 후자는 혁신적 유토피아를 추구한다.

이 두 입장을 정치현실에 개입해야 할 것인지에 대한 贊反 兩論의 입장으로 환원했을 때 그 두 입장의 주장은 대강 이러할 것이다.⁷⁾

참여하는 지식인의 주장은 :

적절하게 훈련받은 지식인이 개입하지 않으면 학문적 업적이 잘못 사용될 것이라는 것, 현실 세계에 개입함으로써 보다 실제에 유관 적합한 연구를 할 수 있다는 것, 정책 결정자로 하여금 성급하게 정책을 결정하기 전에 연구의 필요성이 있음을 이해하도록 한다는 것, 나아가서 사회가 절실히 필요로 하는 경우에 지식인은 그들 사회를 위해 그들의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는 것이다.

참여를 반대하는 입장의 주장은 :

지식인들은 여러 복잡한 문제에 관련하여 정책 결정자가 바라는 대로 즉각적인 해답을 제공하기 힘들다는 것, 정치적 논란의 한 측면에 가담하는 결과 그 과학적 객관성을 잃게 된다는 것, 정치가들은 가끔 학문하는 사람들의 개입을 악용하여 그들의 연구에는 진실로 귀를 기울이지 않고 자기들의 입장이 옳다는 것을 과학적으로 증명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는

- 5) 지식인을 정의함에 있어서 고려해야 할 차원에 관한 논의에 대해서는 Lewis S. Feuer, "What is an Intellectual?" Aleksander Gella (ed.), *The Intelligentsia and the Intellectuals*, Sage Publisher, 1976, p.48 참조.
- 6) M. Weber에 있어서 司祭的 태도에 관련한 논의는 *The Religion of China* (Free press, 1951)에서, 豫言者的 태도에 관련한 논의는 *The Protestant Ethic and the Spirit of Capitalism*(Charles Scribner's, 1958)에서 찾아볼 수 있다. 이 글에서는 정재식, 「종교와 사회변동」(延大 出版部, 1982, pp.142~143)을 참고하였다.
- 7) J. Victor Baldridge, *Sociology : A Critical Approach to Power, Conflict, and Change*, Wiley & Sons, 1975, p.453의 그림 13.1 "The great debate : Should sociologists help solve social problems ?"를 원용하였다.

것, 나아가서 정치현실에 지나치게 개입하는 경우에는 단기적·정책적 연구에 몰두하게 됨으로써 장기간에 걸쳐 문제를 해결하도록 도울 수 있는 기초적 연구를 소홀히 취급하게 될 지도 모른다는 것이다.

이러한 양면 가치의 어느 쪽도 택할 수 있는, 딜레마에 처한 지식인의 모습을 필자는 ‘아누스적 얼굴’이라는 말로 표현하고자 하는 것이다. 이러한 지식인의 모습을 지식인의 형성 과정에서, 그 사회구조적 위치에서, 그리고 그 내면적 자세에서 살펴보고자 한다.

II. 歷史的 背景에서 본 知識人의 두 모습

현대 산업사회의 지식인, 그 역사적 정체는 무엇인가? Coser에 따르면⁸⁾ 지식인은 성스러운 전통의 옹호에 전념했던 성직자의 후예이기도 하고 궁전이나 교회당과 같이 엄격히 제도화된 경건한 聖所에서 멀리 떨어진 거친 황야의 들판에서 인간과 하나님에 대한 교의를 설명하고 사악한 무리들을 저주하고 규탄하는 영감에 가득 찬 예언자의 후예이기도 하다. 전자에서 司祭的 지식인의 모습을 후자에서 豫言者的 지식인의 모습을 찾아 볼 수 있다. 한편 그들은 고대의 소피스트나 그 후예들의 자손인가 하면 중세의 왕궁에서 왕을 즐겁게 해주던 곡예사의 후예이기도 하다. 그리고 보면 지식인들의 조상은 비물질적·정신적 가치에 관심을 집중한다는데 그 공통점이 있다. 다른 사람들이 세속적인 일에 몰두할 때 지식인들의 조상은 정신세계 속에서의 ‘놀이’에서 기쁨을 맛보고, 놀이 그 자체를 즐겼다. 실로 지적 활동을 하고 있다는 희열 속에서 무한의 즐거움을 찾았다.

그러나 앞에서 언급했듯이 현대 지식인들은 근대 르네상스기의 계몽사상의 산물로 등장하였다. 이들 지식인들은 18세기 까지 유력자 또는 전략가의 보좌역이나 대서사의 기능을 수행하고 있었다. 그런데 당시 지식인들은 그들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유력자들이 수적으로 많이 존재하고 있었기 때문에 유력자의 선택에 있어서, 보다 자유로운 입장에 있을 수 있었다. 더구나 유력자의 쇠퇴현상과 지적 생산물을 선호하는 보다 넓은 범위의 공중의 출현으로 드디어 17,8세기에 지식인들은 활짝 피어날 수 있었다.⁹⁾

Sartre에 따르면, 당시 유력자들이란 부르주아지들로서 이들에 의하여 지식인의 부류에 포괄되는 소위 ‘수단의 전문가들’(experts of means)이 탄생된 것이다. 그들은 오직 상업 자본주의가 유지되고 확대될 수 있는 방법을 제공하는 역할을 하는데 불과하였다.¹⁰⁾ 여기서

8) Coser, 前掲書, 서문 참조

9) 上掲書, p. xi 참조

10) Jean P. Sartre : 조영훈(역), 「지식인을 위한 변명」, 한마당, 1979, p.18.

우리들은 M. Weber가 관료적 생활양식의 지배현상에 대해 의혹을 나타내면서 언급한 ‘정신 없는 전문가들’¹¹⁾의 모습을 본다. 이것은 현대 관료조직에 얽매인 지식관료의 모습이라 할 것이다. 한편 17세기 말엽, 철학자들은 중세의 교회가 그러했듯이 당시의 이데올로기를 구축하는 일을 담당하였다. 즉 당시의 부르주아지의 입장을 정당화해 주는 합리적 우주관을 창조해 내는 일을 하였다.¹²⁾ 당시의 철학자들의 활동은 그 이상에 있어서나 실제에 있어서 신흥 부르주아지의 활동에 일치하는 것이었다. 따라서 당시의 지식인들은 부르주아지의 비호를 받고 그 이익에 밀착되어 있었다. 이제 지식인은 그 司祭的 모습을 띠, 엘리트적 열망에 찬 이데올로기의 주창자가 된 것이다.

이와 같이 근대의 지식인들은 계몽사상의 풍토 속에서 부르주아지의 입장을 수호해 주는 ‘수단의 전문가’ 및 이론가의 모습을 띄고 등장하였다. 여기에서 우리는 참여의 지식인, 체제옹호의 지식인의 얼굴을 보게 된다. 이러한 얼굴은 1930년대 ‘Brain Trust’의 예에서 보는 바와 같이 ‘고문단으로서의 지식인’으로 재현되고 오늘날 제도적 지식엘리트로 이어지게 된다.

19세기에 이르러서 계몽사상가의 후예들인 지식인들은 소위 ‘드레퓌스’(Dreyfus)사건 이후 허위를 고발하고 진실을 추구하는 지식인 운동에 의해 그들의 특징적 성격의 면모에 획기적인 전환이 일어났다. 지배계급에 의해 배출된 실용적 전문가들인 지식인들은 이제 그들 사회의 모순에 괴로워하게 되고, A. Weber가 말하는 바 ‘自由浮動의 인텔리겐차’(frei-schwwebende Intelligenz)¹³⁾라는 지식인의 모습을 띄게 된다. 이들 지식인들은 사회적으로 질서에 너무 견고하게 얽매이지 않는 것을 그 특징으로 한다. 이들이 H. Hughes가 말하는 바, Mannheim이 옹호하고 그 정당성을 밝히고자 하였던 사라져가는 ‘자유로운 입장의 사상가’¹⁴⁾들인 것이며 “진실을 밝히고 허위를 비판하는 정신…… 편견과 아집, 부조리와 불의를 교정하려는 모든 계몽운동의 본질”¹⁵⁾을 지니고 있는 집단인 것이다. 이것이 바로 지식인 고유의 특성을 지닌, 엄격한 의미의 지식인 집단이라 할 것이다. 여기서 우리는 종래의 체제수호적 ‘수단의 전문가들’ 및 이론가들과는 그 성격을 달리하는 또 하나의 지

11) M. Weber, *The Protestant Ethic and the Capitalism*, 1958, p.182. 이 글에서는 Eva Etzioni-Halevy, *Social Change*, Routledge & Kegan, 1981, p.30 참조

12) Sartre : 조영훈(역), 前掲書, pp.19~20. Sartre는 법률가인 몽테스키외, 문필가인 볼테르, 디드로, 루소, 수학자인 달랑베르 등을 당시의 ‘철학자들’의 예로 든다.

13) Mannheim, op. cit., p.138 참조

14) H. Stuart Hughes : 황문수(역), 「의식과 사회」, 흥성사, 1979, pp.398~399 참조. Hughes는 Mannheim을 사라져가는 마지막의 위대한 지식인으로 묘사하고 있다.(上掲書, p.400)

15) 차하순, “지식인의 역할,” 「현대사회론」 서울대학교 출판부, 1975, p.93.

식인의 모습을 보게된다.

그러나 다른 사회현상들이 그러하듯이 지식인 현상도 역시 존재 구속적인 것이다. ‘드래 워스’ 사건 이래 한 세기가 미처 안되어서 지식인들의 성격에 큰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 이념적·비판적 소외의 성격을 띄었던 근대의 지식인들은 오늘날 다시 기능적·관료적 참여의 경향을 띄게 되었다. ‘예언자’로서의 자유·부동하는 不羈束의 지식인 (unattached free-floating intellectuals)은 ‘고문단’으로서의 지식인 (intellectuals as advisor), 즉 사제적 지식인에 의해 압도당하기에 이르렀다. 과학과 기술혁명에 의해 초래되는 후기산업 사회 (post-industrial society)는 이론적 지식과 지적 기술이 고도로 발전된 사회이기 때문에 자연히 D. Bell이 말하는 바의 지식계급 (Knowledge class)이 확대되고 이들은 기술관료가 되어 사회의 지배적 위치에 서게 된다.¹⁶⁾ 현대 산업사회는 고도로 분업화됨으로써 그 통합·조정이 중요한 문제가 되고 결국 이 통합직을 맡은 사람들이 지배의 자리에 앉게 된다. “권력의 원천은 ‘생산수단’의 소유가 아니고 ‘통합수단’의 지배인 것이다.”¹⁷⁾ 자본주의 사회이든 사회주의사회이든 대체로 대규모의 생산조직과 거대한 행정기구가 생겨나서 통합기능을 맡은 자들이 그 조직의 핵심세력이 된다.¹⁸⁾ “목표는 지배계급에 의해 결정되고 노동계급에 의해 실현되지만 그 수단을 연구하는 일은 3차산업이라 부르는 직종에 속하는 학자, 기사, 의사, 법률가, 법학자, 교수 등등 일군의 기술자들에게 남겨지게 된다.”¹⁹⁾ 이들 실용적 지식 전문가들은 지식엘리트가 되어 통제엘리트와 하층 노동자의 중간을 차지하게 되는 것이다. 이런 부류의 지식인들은 조직과 제도에 얽매이게 되고 권위와 관료에 의해 구속을 받는 전문·기술적 화이트 칼라가 된 것이다.

이렇게 하여 계몽사상가의 후예인 지식인은 의식적이든 무의식적이든 지배자의 이데올로기를 과학적 법칙인양 지지하는 입장으로 변신하여 ‘지식기사’ 혹은 ‘지식 기술자’의 모습을 띄게 된다. 이 ‘지식기사’를 지식인의 한 모습으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이를 부정적으로 보는 입장들²⁰⁾이 있으나 지식인들을 사회로 부터 필히 분리되어 사회를 비판하는 위치로만 생각해 버리는 것은 현대사회에 있어서 지식인들이 참여하는 실상을 외면하

16) Daniel Bell, *The Coming of Post-Industrial Society*, Basic Books, 1973. 3장 참조.

17) Alvin Toffler : 유재천 (역), 「제 3의 물결」, 문화서적, 1981, p.84.

18) 上揭書, p.88.

19) Sartre : 조영훈 (역), 前揭書, p.17.

20) 한완상, 「민중과 사회」, 종로서적, 1980 ; 차하순, 前揭論文 ; Charles H. Anderson, *The Political Economy of Social Class*, Prentice-Hall, 1974, p.192. 참조. 한완상은 ‘지식기사’라는 용어를, 차하순은 ‘지식기술자’라는 용어를 쓰고 있는데, 한완상의 ‘지식기사’의 용어는 기술관료 (technocrats)와 어용이론가 (ideologue)를 포함하는 의미로 쓰고, 이를 지식인과 구별짓고 있다.

는 처사요 사실의 문제를 회피하는 것이라고 보게 되면²¹⁾ 결국 '지식기사'도 지식인의 범주에 넣어 논의함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²²⁾

이상의 논의에서 우리는 서로 다른 얼굴을 가진 두 부류의 지식인들이 존재함을 알 수 있다. 하나는 사회를 비판하고 그로부터 소외되어 위치하는 부류의 지식인들이고, 다른 하나는 사회체제 속에서 어떤 역할을 맡거나 정치적 현장에 직접 뛰어드는 참여자로 존재하는 부류의 지식인들이다. 전자는 자유 계약적이어서 자유롭게 사고하고 행동할 수 있고 후자는 제도 구속적이어서, 제도적이고 조직적인 권위의 연속에서 탈피하기 어렵다.²³⁾ 정치 권력에 대한 관계에서 보면 전자는 비판자요 저항자이며, 후자는 권력에 대한 참여자이며 협력자라 할 것이다.²⁴⁾ 전자는 不羈束 지식인들의 비판·저항의 얼굴이며 후자는 지식관료들의 참여·협력의 얼굴이다. 이러한 지식인들의 야누스적 모습은 또한 사회계층구조에 관련지어 살펴볼 수 있다.

Ⅲ. 社會階層構造上的 知識人の 相反하는 두 위치

앞에서 우리는 두 부류의 지식인들의 모습을 일별하였다. 현실 참여의 모습과 현실 비판의 모습이 그것이다. 전자의 얼굴을 한 것이 지식기사 혹은 지식기술자들로서, 이들은 지식엘리트이며, 통치엘리트와 결합하는 집단이고 후자는 엄격한 의미의 지식인의 모습으로서 이런 지식인들은 현실의 모순을 비판하고 이상을 추구하는 집단이며 浮動의 계층을 이룬다.

지식인들이 공통으로 갖고 있는 지식이라는 요소는 현대 산업사회에 있어서 생산의 핵심적 요소가 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본주의 사회에 있어서 생산수단의 소유자들이 단일 자본가 계급을 형성했던 것과는 달리 하나의 계층 혹은 계급을 형성하고 있지 못하다.²⁵⁾ 지

21) Seymour M. Lipset, *Political Man*, Johns Hopkins Univ. Pr., 1981, p.333.

22) 이에 대한 긍정적 논의는 *ibid*, p.334~335 및 Robert K. Merton, "Role of the Intellectual in Public Bureaucracy," in *Social Structure and Social Theory* Free Press, 1957, pp.207~224. 참조할 것.

23) 김영모, 「현대사회계층론」, 한국사회복지정책연구소, 1982, pp.146~147 참조.

24) 지식인의 정치에 관련한 두 부류의 입장에 대한 논의는 Robert J. Brym, *Intellectuals and Politics*, Allen & Unwin, 1980. 을 참고할 것. Brym은 정치에 대한 지식인의 두 입장을 급진주의자와 온건주의자, 과두정치론자와 민주정치론자, 좌익과 우익으로 대비시켜 보고 있다.

25) 이 문제는 신형철, 前揭論文에서 체계적으로 다루었다. 이하 지식인을 계층구조에 관련지어 논의하는 내용은 그 논문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

식인 집단의 계층적 성격을 이분법적 논리에서 살펴보면, 지식인들은 재산을 소유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에서 노동자 계급에 속할 수 있고, 높은 사회적 보상을 받는다는 점에서는 자본가계급의 성격을 갖는다. 다시 말하면 생산관계의 면에서는 노동자의 성격을, 분배의 면에서는 자본가의 성격을 갖는다. 의식의 면에서 보면, 지배층과 자신들을 일치시키는가 하면 때로는 피지배층과 동일시 하기도 한다. 이러한 의식성향은 행동으로 나타나서 지배층의 이데올로기를 옹호하는가 하면 때로는 대중의 열렬한 대변자로 등장하기도 한다. A. Giddens에 따르면 “계급구조상의 인텔리겐차의 위치는 상호 대립되는 힘에 의하여 영향을 받는다. 재산 없는 피고용자로서의 인텔리겐차는 하급 화이트칼라 노동자나 육체노동자와 마찬가지로 재산 소유계급으로부터 분리된다. 그러나 이 집단의 성원들이 그 지배의 방향과 그 조종에 주요 역할을 하는 한 그리고 그들 스스로 프로레타리아 보다 오히려 지배계급과 관계를 맺고 있는 한 그들은 그 계급의 부속물로서 고려될 수 있다.”²⁶⁾ R. Dahrendorf에 따르면 “자본주의 하에서 지식인은 대체로 유산계급 출신이고 그들 자신의 계급과 밀접히 연결되어 있다. 그들 가운데는 농민이나 노동계급에 밀접히 연결되어 있는 노동자 인텔리겐차의 대표도 있다.”²⁷⁾ 그리하여 지식인의 한 편은 지식관료의 입장에서 현실의 이데올로기를 지지하는 얼굴이고 다른 한편의 얼굴은 不羈束의 지식인의 자세에서 유토피아적 진실을 찾는 모습이다.²⁸⁾ 여기서 우리는 지식인들의 계층구조상의 야누스적 모습을 보게 된다. 이제 두 모습을 각각 분리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지식인계층의 소외의 모습

不羈束의 지식인계층은 1890년대에 계몽사상의 후예로 등장한 자유·부동의 (free-floating) 지식인 집단으로서 조직이나 체제의 구속에서 떨어져 나와 지적 자유를 구가하고자 하는 사람들의 집단이다. 진실을 밝히고 허위를 고발하는 지식인 고유의 성격을 유지하면서 보편성을 추구하고 시대적 상황에서 초연한 超이데올로기적 자세를 견지하려 한다.

이 계층의 지식인들은 지배-복종의 정치권력구조의 밖에 위치해 있는 사람들이며, 사회구조에 쉽사리 적응하지 못하고 다소 고독한 자유를 즐길 수 있는 피난처를 찾는 그런 부

26) Anthony Giddens, *The Class Structure of the Advanced Societies*, Hutchinson, 1973, pp.235~236.

27) Ralf Dahrendorf, *Class Conflict in Industrial Society*, Stanford Univ. Pr., 1959, p.80.

28) 지식인들 가운데는 ‘유동성의 중간적 지식인 집단’에 속하는 지식인도 있을 수 있다. (신형철, 前掲論文, pp.236~238 참조) Merton이 말하는 바 관료제에 羈束되지 않는 지식인이나 Aron의 ‘참여하는 관찰자’ (Raymond Aron : 이종호(역), 「참여자와 관찰자」 흥성사, 1982 참조)는 이에 해당한다. 그러나 이 부류의 지식인은 주변적 부가적 유형인 것이고 야누스적 모습의 복합이라 할 것이다.

류의 사람들이다.²⁹⁾ 그들 계층은 Mannheim이 말하는 바 “사회적 공간 속에서 그렇게 고정된 위치를 차지하지 못하는 비교적 계급성 없는 계층”이며 A. Weber의 용어를 빌어 ‘사회적으로 부동하는 인텔리겐차’라고 이름했던 계층이다.³⁰⁾

이 ‘매어 있지 않고’(unattached), ‘자유부동하는’(free-floating) 성질을 가지고 있는 불기속의 지식인 집단은 계층구조상에서 그 구조 밖에 위치한다. R. Dahl의 정치층(political stratum)의 개념에서 보면 비정치층이면서도 다른 부류의 사람들과는 달리 비추종적이라는 특성을 갖는다. 정치층에서 소외된, ‘매어 있지 않은’ 집단인 것이다.³¹⁾

현대 산업사회의 진전에 따라 이들 순수한 의미의 지식인계층의 모습은 퇴색되고 그 세력도 약화되어 가는 것으로 보인다. 비록 그들의 모습은 창백하고 무기력해 보이지만 그 진실을 추구하는 자세는 한 사회·문화의 진행에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지식인계층의 참여의 모습

사회계층구조에 관련지어 본 지식인들의 또 하나의 얼굴은 지식관료층에서 볼 수 있다. 이 계층은 대학이나 연구기관 등 비교적 고유의 지적 활동이 보장되는 지적 전문기관에 종사하는 지식인들의 경우를 제외하고 어떤 조직체의 관료질서에 얽매어 그 조직체 자체를 뒷받침해 주는 일에 고용되어 있는 지식전문가 계층이다. 지식관료들은 국가 혹은 기업을 위해서 학문적 작업과 고문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해야 하는 ‘지식기사’(intellectual technicians)라 할 수 있고, 현실 참여자들로서의 지식엘리트층을 이루고 있다. 이들은 주로 결정된 목표를 달성하는 수단을 연구하는 일에 종사하게 된다. 이들은 지식 엘리트가 되어 통제엘리트와 하층 노동자의 중간을 차지하게 되는 것이다. 이들은 관료로 전향한 지식인이고 지배계급을 둘러싸고 지배계급의 위치와 이익에 관련하여 유리한 신화를 만들어낼 뿐 아니라 정책을 형성하고 시행하는 데 매우 적극적인 역할을 맡는다고 하겠다.³²⁾

권력을 잡은 집단을 ‘통제 엘리트’ 혹은 ‘권력 엘리트’라고 했을 때 이 권력에 지식을 제공하는 지식인들은 ‘지식엘리트’라 불러도 좋을 것이다. 다만 여기서 말하는 바의 ‘지식엘리트’란 전문적 기능을 맡는 전문가 엘리트로서 모든 지식엘리트를 포괄하는 의미가 아니다. ‘지식엘리트’에는 비판적 기능을 수행하는 부류의 지식인들도 포함할 수 있을 것이

29) Ralf Dahrendorf, “Recent Changes in the Class Structure of European Societies,” F. Lindenfeld (ed.), *Reader in Political Sociology*, Funk & Wagnalls, 1968, p.235.

30) Mannheim, *op. cit.*, pp.137~138.

31) 신행철, “갈등이론에 있어서의 산업사회 계급형성에 관한 이론 검토,” 제주대학 「논문집」 13집, 1981, p.107. 참조.

32) Anderson, *op. cit.*, p.232; Sartre; 조영훈(역), 前掲書, pp.23~25.

다.³³⁾ 오늘날 통제(control)와 지식(knowledge)은 매우 밀접한 관계에 있어서 서로 교호적인 관계에 있다. 통제엘리트는 지식엘리트를 양성하고 지식엘리트는 통제엘리트를 지원한다.

지식관료층을 관료조직에 관련하여 보면 그들은 '관료적 지식인'(bureaucratic intellectual) 집단인 것이며 조직 내의 정책 결정자들을 고객으로 하여 참모기능을 수행하게 된다.³⁴⁾ 이 집단은 정책결정자에 의해 규정된 어떤 정책이든지 단순히 시행하는 것을 그들의 역할로 생각한다. 정책결정자는 목표를 정하고 지식관료는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선택적 수단을 제시한다.³⁵⁾ 이 계층을 J. K. Galbraith가 말하는 바 '테크노스트럭처'(techno-structure)에 관련하여 보게 되면, 그 조직의 핵심인 최고 경영자층에 접근되어 있는 전문·기술직층으로서 그 조직에 밀착되어 있는 계층인 것이다.³⁶⁾

이 계층은 지식산업의 노동계급으로 논의되기도 하고 자본주의 사회의 지배계급인 브르조아 계급의 한 부류로 보는 경우도 있다.³⁷⁾ 비소유층인 점에서 보게 되면 노동자계급에 가깝고, 상승이동을 포함하여 높은 사회적 보상을 받는다는 점에서는 지배계급에 가깝다. 지식관료의 이러한 양면적 성격은 지식인의 야누스적 성격을 더욱 복잡하게 만들고 있다. 그러나 대체로 이 지식인계층은 사무직 종사자와는 구별되어 신중간계급의 상층부를 형성하면서 지배층과 밀착되어 있다. 바로 여기에서 우리는 참여의 지식인의 전형적인 모습을 보게 된다.

IV. 知識人의 心理的 葛藤의 모습

이상에서 우리는 서로 상반하는 모습을 지닌 두개의 지식인 집단에 대하여 논의하였다. 여기서 우리는 지식인들이 인간사회의 진실과 지배층의 이데올로기의 대립 사이에서 그 심리적 갈등을 경험하게 될 개연성이 있음을 알 수 있다. P. Steinfels는 지식인들로 구성

33) A. Etzioni, *The Active Society*, Free Press, 1968, ch.8 참조.

34) Merton, *op.cit.*, p.212.

35) *ibid*, p.213.

36) Galbraith는 그의 *New Industrial State*(Penguin, 1972)에서 '테크노스트럭처'의 구조에 대한 논의를 하고 있는데 그 요점은 신행철(1981), *前掲論文*, p.105 참조.

37) Charles H. Anderson, *Toward a New Sociology*, Dorsey Pr., 1974, p.128 ; Anderson, *op. cit.*, pp.56~57 및 p.129.

되는 ‘새로운 계급’을 논의하면서³⁸⁾ “이 ‘새로운 계급’은 그것이 지니는 자주적이고 자율적인 행동에 대한 취향과 기업체 또는 관료조직의 속박에 따라야 할 필요성 사이의 상당한 갈등을 경험”한다고 지적한다.

개별 지식인은 不羈束의 전형적 지식인의 모습을 지닐 수도 있고, 지식기술자로서 제도 구속적인 참여자의 얼굴을 가질 수도 있다. 그러므로 지식인은 흔히 양자택일적 딜레마의 상황을 경험한다. 이것은 지식인의 가능한 심리적 갈등의 상태이다. 참여와 소외라는 지식인의 선택적 양면가치 속에서 지식인이 겪는 심리적 갈등 상태, 여기서 지식인의 이중적 속성을 가늠할 수 있게 된다.

현대 산업사회에 있어서 지식인은 과학의 이데올로기화라는 상황 속에서, 과학적, 전문적 사유의 보편성과 이데올로기의 자기 중심성 사이에 일어나는 갈등을 경험하게 된다. 이러한 갈등은 사회체제의 차원에서 보면 D. Bell이 말하는 바 ‘자본주의의 문화적 모순’에 관련된다고 하겠다. 즉, 경제영역에서의 능률성과 문화영역에서의 자아실현의 논리 사이에 괴리가 생기면서 참여의 지식인의 입장과 소외의 지식인의 입장에 모순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다.³⁹⁾ 반 지성적 허무주의는 이래서 나타난다.

한편 오늘날의 지식인들은 경제적 욕구 충족과 정신적 여유의 향유 사이에 심한 갈등을 느낀다. 지식인들은 고용자의 뜻과 지성적 신념사이에 모순을 발견하게 된다. 이 때 신념을 포기하는 것은 도덕적 타락이라 할 것이며 고용자의 뜻과 모순되는 신념의 추구는 경제적 궁핍이라는 위협이 된다. 여기에 Feuer가 말하는 바 ‘fellow-traveller’라는 지식인의 모습이 등장한다. 즉 지식인은 권력 지향적인 정치관료가 하는 일을 정당화 하기 위하여 보편적 가치를 동원하고 그 변명자로서 행동하면서도 그의 지적 독립성을 잃지 않았음을 가정한 자가 된다.⁴⁰⁾ 이러한 지식인의 입장은 Scalapino가 근대화에 관련하여 제창하는 지식인의 개념 속에서도 살펴 볼 수 있다. 그는 지식인이 근대화의 목표에 가장 잘 기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지식인의 일반화된 비판과 전문적 충고의 기능이 유지되어야 한다고 하고 지식인의 비판의 독립성과 신분의 평등을 존속케 하여 주면서 정치적 엘리트와 상호 영향을 줄 수 있는 정책연구가로서의 지식인이라는 개념이 발전되어야 한다고

38) Peter Steinfels : 김쾌상(역), 「현대미국지성사」, 현대사상사, 1983, pp.368~374. Steinfels는 ‘새로운 계급’의 특징으로 첫째 그 힘의 원천이 전문지식과 기술 및 그들이 차지한 거대한 복합조직상의 위치에 있다는 것, 둘째, 적어도 처음에는 고등교육과 이를 통해 얻은 자격증을 갖는다는 것을 들고 있다.(ibid, p.369).

39) Daniel Bell : 오세철(역), 「자본주의의 문화적 모순」, 전망사, 1980. 참조.

40) Feuer, op. cit., p.56.

제창한다.⁴¹⁾ 그러나 현실적으로 이러한 입장을 오래 지속하기는 어렵게 된다. 왜냐하면 현실 유지적 통치엘리트의 의도와 지식인 본래의 비판적 독립성은 조화를 이루어 결합되기가 어렵기 때문이다. 그라하여 고대 헤브라이 시대에 “한 때 지혜와 예언 사이에 갈등이 있었던 것 처럼, 오늘날 이념론자(ideologist)와 과학철학자들 사이에 분화가 생길지도 모른다.” 이 때 이념론자는 과학철학자를 지식인의 서열로 부터 절연할 것이다.⁴²⁾ 혹은 그 반대로 후자가 전자를 지식인의 자격을 상실했다고 지식인 사회에서 몰아낼지도 모른다. 이념론자와 과학철학자, 그 어느쪽도 지식인에게 가능한 입장이고 그 양자가 서로 조화를 이루기 어려운 성격의 것이라는 점, 여기에 지식인의 심리적 갈등이 나타난다.

때로는 지식인의 신념에 대한 위협이 사회체제에 대항하게 되는 계기가 될 수도 있다. C. Brinton은 그의 책 ‘The Anatomy of Revolution’ (1950)에서 어떤 체제의 정당성과 효율성에 문제가 있을 때 지식인은 그 체제에 대해 혁명을 촉발하게 된다고 하였다. 지식인들이 정부를 저버릴 때 그들은 대중이 당분간 무의식적으로 느꼈던 어떤 것을 드러내어 폭로하기 때문이다.⁴³⁾ 현존 질서에 대한 내면적 충성심의 와해는 외면적 행동으로 나타나서 혁명에 이르게 된다. 여기에 진노하는 지식인의 모습을 보게 된다. 그러나 현존 사회의 통제체제에 저항하는 또 하나의 방법은 老子 이래로 사용되는 방법이며 스토아학파에 의해 저항이론으로 체계화된 초연(detachment)의 방법이다. 이 때 사회적 무대로 부터 퇴장하여 자신이 만든 종교적, 지적, 또는 예술적 영역에 몰입한 지식인의 초연한 모습을 보게 된다. 진노의 모습이나 초연의 모습은 모두 저항의 모습이다. 한편 현존 통제체제에서 통제엘리트와 이해관계를 같이하는 지식엘리트는 그 전문지식을 배경으로 하여 사회체제의 합법적 수호자가 된다. 이 때 우리는 지식인의 권위의 모습을 보게 된다.

이들 지식인의 모습은 선택적인 것이다. 그 어떤 선택에도 불구하고 그 선택은 가능한 것이기 때문에 지식인은 심리적 갈등을 느낀다. 체제 내에 발을 들여 놓은 지식인들은 한편으론 그 체제에 대한 비판의 가능성을 숨겨놓고 있다. 체제 밖에 은거하고 있는 지식인들은 한편으로 체제에 공헌할 수 있는 이념적 무기를 감추어 두고 있다. 이와같이 지식인은 그 내부에 이율배반적 야누스의 모습을 지니고 있다. 이러한 개별지식인의 내부 모습은 지식인계층 자체의 이중적 속성과 관련된다. 지배체제와 관련지어 볼 때 “지배체제가 요구하

41) Robert A. Scalapino, “Political Modernization and the Intellectuals,”
Report : International Conference on the Problems of Modernization in Asia,
1965, pp.508~9. 이 글에서는 홍승직, 「지식인의 가치관 연구」, 삼영사, 1972, p.16
에서 재인용함.

42) Feuer, op. cit, p.57.

43) John A. Parry & Murray B. Seidler, *Patterns of Contemporary Society*,
Confield Pr., 1973, p.82 참조.

는 이익을 실현하는 측면과, 진리와 사상의 자유에 대한 보편적인 담당자라고 하는 측면은 지식인 고유의 성격이다. 이 경우에 보편성의 요구는 때때로 체제에 대한 특수한 이익과 모순되는 것"이다.⁴⁴⁾ E. Shils가 말하는 것 처럼 17세기 이래로 존속해 온 지식인들은 "이 지상의 세속적 정치권력과 하늘 나라의 이상적인 절대권력 사이에서 항상 영원한 긴장을 맛보아야만 했다."⁴⁵⁾ 이러한 긴장이야말로 사실상 그들 지식인의 성격을 설명해 주는 가장 중요한 특징으로 지적할 수 있을 것이다.

V. 結 論

현대 산업사회에 있어서 지식인들은 두개의 얼굴을 동시에 지니고 있다. 사회를 비판하고 그로 부터 소외되어 존재하는가 하면, 때로는 사회체제 속에서 어떤 역할을 맡거나 정치적 현장에 직접 뛰어드는 참여자로 존재하기도 한다. 참여의 지식인은 현실의 제약과 압박을 고려하게 되고 그리하여 체제 현실을 인정하는 입장에서, 참여로 인한 예측적 상태를 감수하지 않을 수 없다고 생각한다. 이에 반해서 소외의 관찰자는 체제섭리의 비밀을 꿰뚫어 보고, 이를 만인의 도덕이라는 이름으로 고발하고 선언하여 양식있는 사회의 건설을 호소한다.

여기에 지식인의 야누스적 두 모습을 본다. 하나는 이데올로기의 열렬한 지지자로 등장하는 모습이요, 다른 하나는 진실을 찾아 유토피아를 동경·추구하는 모습이다. 전자는 시祭的 모습이요, 후자는 지식인 고유의 豫言者的 모습이요, 개별 지식인에게 있어서는 이율배반적 갈림길에서 양자택일적 선택을 강요 당하는, 고뇌의 모습을 본다. 오늘날 지식인들은 현실과 이상 사이에 갈등을 경험하고는 그 어느 쪽으로도 기울어질 수 있는 개연성을 지닌 이중적 속성의 존재라 할 것이다. 지식인들은 체제에 발을 들여 놓고 그 체제의 이데올로기를 추구하면서도 그들의 '야성의 부름'(The call of the wild)⁴⁶⁾에 응하여 체제의 모순을 타파하고 민중의 복지를 위해 개혁의 선구적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한편 체제 밖에서 은거하여 유토피아를 추구하면서도 현실적 체제의 청사진을 마련해 놓고 있다는 생각을 한다. P. Steinfels에 따르면 지식인은 세상의 방식에 대해 순진한 인간이 되기도 하고 마키아벨리와 같은 인간이 되기도 한다. 지식인은 의지 박약자인가 하면 광신자이기도 하다. 지식인은 냉담·살벌한가 하면 감상적이고 박애적이다. 그는 딱딱하기도 하

44) 平田清明(편저) : 장하진(옮김), 「사회사상사」, 한울, 1982, p.334.

45) Edward Shils, "Ideology and Civility," *The Sewanee Review* LXVI, 1958, p.459. 이 글에서는 Lewis A. Coser, *Men of Ideas*, (op. cit.,) 참조.

46) 1903년 J. London에 의해 쓰여지고 오랫동안 베스트셀러가 된 작품명을 원용하였음.

고 부드러움도 하다. 아무튼 지식인은 정치가 없고 변하기 쉽고 믿음성이 없다.⁴⁷⁾ 지식인의 비판은 진실을 담고 있되 비현실적인 태가 있다. 이렇게 지식인들이 서로 상반하는 두 개의 얼굴을 지니고 있다는 점은 지식인들을 비난하거나 경멸하는 구실의 하나가 되고 있다.⁴⁸⁾ 지식인은 지배계급으로 부터도, 민중으로 부터도 때때로 따돌림 당하는 신세가 된다.

이러한 야누스적 딜레마를 극복하려는 지식인의 모습이 있다. R. Aron의 ‘참여하는 관찰자’의 모습이 곧 그것이라 할 수 있다.⁴⁹⁾ 참여하되 권력에 맹종하지 않으며, 권력의 반대편에서 비판하되 파괴하지 않는다. 역사의 관찰자로서 가능한한 객관적으로 보려고 노력하는 동시에 진행중인 역사, 형성중인 역사에 대해 완전히 초연한 입장을 취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이는 배우와 관객의 자세를 결합하려는 입장이다. 이것은 참여하되 예속되지 않으며 비판하되 부정하지 않는다는, 사회체제 참여에의 긍정적 모습이다. 이는 지식인의 상반하는 두 입장을 변증법적으로 종합한 모습인 것이요 야누스적 딜레마를 해결한 지식인의 이상적인 모습인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런 지식인은 ‘유동성의 중간적 지식인’이라 부를 수 있을 것이다.⁵⁰⁾ 일단 체제에 참여하는 지식인들은 그 체제의 질서에 봉사하는 과정에서 점차 그 자주성이 쇠퇴하게 되고 지식관료로 전환되어 버릴 것이다. 사람들의 견해나 입장은 대체로 그 사회적 위치의 산물이라 보기 때문이다. 여기에 지식인들의 좌절과 갈등과 고뇌는 남게 된다.⁵¹⁾

지식인은 사회적으로 주변적 위치를 차지하는 주변인이다. 결국 지식인은 고독한 존재이다. 미래의 어느 때인가 지배엘리트의 통제에 종속되어 버림으로써 지식소외를 경험하고는, 무력하고 창백해진 얼굴의 범인으로 전락해 버릴지도 모른다. 현대의 조직사회가 더욱 진전되는 날, Aldous L. Huxley의 소설 ‘멋진 신세계’의 주인공으로 등장하는 최후의 문명인 ‘세이비지’⁵²⁾의 신세가 되어 살아져갈 숙명적인 시대를 맞게 되는 것은 아닌지? 이점은 ‘지식인의 미래’를 예측하는 또 다른 연구주제의 하나가 될 것이다.

47) Peter Steinfels : 김쾌상(역), 前掲書, p.250.

Steinfels는 대항지식인(counter-intellectual)을 중심으로 지식인의 특성을 비판적으로 논의하고 있다. (특히 上掲書, pp.245~253 참조할것)

48) 지식인들을 나타내는 용어인 ‘dreamy scientist’, ‘eggheads’, ‘longhairs’, ‘high-brows’, ‘crackpots’ 등은 지식인들에 대한 비난 섞인 표현들이다.

일찌기 Edmund Burk는 프랑스혁명 초기에 프랑스의 계몽사상가들과 이들을 찬양하는 영국 지식인들에게 대해 다음과 같이 비난하였다고 한다. “문학패거리들과 음험한 철학자들… 정치적 신학자들과 신학적 정치인들”, “별나고, 거만하고, 멀리보지 못하는 철학의 멋쟁이들”; “냉담한 가슴과 흐리멍덩한 이해력”(上掲書, p.245).

49) Raymon Aron의 前掲書 참조.

50) 신형철(1983), 前掲論文, pp.236~238. 참조.

51) R. Merton, op. cit., pp.214 ff 참조

52) ‘멋진 신세계’의 주인공 이름을 ‘Savage’라고 표현한 것은 매우 시사적이다.

Summary

The Janus-Faced Intellectuals of Contemporary Industrial Society

Synn Haeng-chull

The present paper is to examine the so-called Janus-faced intellectuals of contemporary society. The intellectuals criticize the society in a detached position, or take part in the established system by engaging in the conduct of political affairs. Since the participant intellectuals could perceive and accept the actual restrictions of the established system, the state of their oppression due to participation is thought to be inevitable. On the contrary, the detached critics see through the hidden dimension of existing system, expose it in public, and declare the reconstruction of sane society in the name of morality.

Here, we find the Janus-faced intellectuals. One is the face to support passionately the ideology, and the other is the face with their intense aspirations of the truth. In other words, the former is the priestic face and the latter is the prophetic face proper to the intellectuals. As an individual, the intellectual has an agonized look, because he is coerced to select one of two alternatives, as do, for example, idealistic and realistic intellectuals. He is able to be inclined to either of the two.

The following discusses these dual properties of the intellectuals in terms of three dimensions: historical, social and psychological.

(1) The rise of intellectuals in history:

Intellectuals, in history, are the descendants of the priests supporting the sacred traditionalism, while they are also the successors of the insightful prophets denouncing the wicked cliques, detached from the Royal Court and the church. When we want to find the roots of contemporary intellectuals in history, the one root is found in the 'experts of means' supporting the bourgeoisie, during and after the Enlightenment of modern age. In the 'unattached free-floating intellectuals' connected with the so-called *Dreyfus* affair in the late 19th century, the other is found. These latter are utopians, while the former are ideology proponents.

(2) The position of social stratification:

Contemporary intellectuals are not included in one stratum of their own. They are, on the one hand, components of the ruling class connected with a governing elite, and are, on the other, members of an amorphous stratum outside of the dominant structure. The former is the participant as a technocrat, and the latter is unattached as a free-floating intellectual.

(3) The psychological conflict of intellectuals:

Intellectuals cannot help but suffer internal conflict as they confront the opposition between the truth in the human society, and the ideology of the ruling class. They experience also much of the conflict between their aptitude to freedom and autonomy, and the necessity of following the existing order of the system. It is their specialized knowledges and techniques that make the intellectuals take either the face of unattached critics or the face of participants supporting the dominant system.

The intellectuals of contemporary society could take the position of '*Le spectateur engage*', the new face which synthesizes both of their antinomic faces of Janus. Is, however, this face

possible as a matter of fact, in present or future? In the end, wouldn't intellectuals be reduced to layman with pale look because of their subjection to the control of ruling elite? These problems would be beyond our discussions in this paper, though they might be discussed in another one.